

새로운 맞춤정장 SYSTEM

LDM
LINDEMAN

명품은 토끼 같은 사람보다는
우직하지만 기본을 지키고 성실하며
꾸준한 거북이 같은 사람의 손 끝에서 탄생합니다



자연과 하이테크놀로지가 하나가되어
우리 몸과 함께 움직이는 옷
최상의 원단과 인체 공학적인 패턴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이 바로 LDM 린드만 정신입니다
한땀 한땀의 정성에 LDM 만의 첨단 특허 시스템이
귀하에게 부드러움과 품격을 드립니다

공장직영으로 고객님께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합니다
단체 주문 시 출장 가능 | 문의 02)896-2070

* 아름다운 사람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밀알복지재단에 신사정장을 기부하였습니다.



[국내사업장]

법인사무국	02-3411-4064
경남지부	055-753-1456
전남지부	061-681-7178
장애인복지사업	
강남구직업재활센터	02-2184-8700
밀알학교	02-3412-1133
밀알연구소	02-3411-4065
굿윌밀알스토어	02-6913-9100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	031-777-9041
안산밀알보호작업	031-402-2484
안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403-0078
안산밀알센터	031-401-0902
나눔의 집 그룹홈	02-3401-1084
섬김의 집 그룹홈	02-448-3478
동봉의 집 그룹홈	055-754-9096
옥수그룹홈	031-705-3998

아름드리그룹홈	031-414-3171
천우리주간보호센터	02-2164-8700
체마을주간보호센터	02-3412-2222
온유천주단기센터	031-418-9863
밀알주간단기보호센터	02-3414-0314
노인복지사업	
도봉노인종합복지관	02-903-9900
도봉데이케어센터	02-903-6670
도봉시니어클럽	02-3402-3009
도봉실버센터	02-955-6080
도봉실비데이케어센터	02-955-6080
도봉제가노인지원센터	02-3404-6060
도봉고령자취업알선센터	02-903-1988
특권데이케어센터	02-3412-2226
서울도봉실버데이케어센터	02-955-6090
서초중앙노인종합복지관	02-3474-6080

지역복지사업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02-3412-2222
대청동협동사회복지관	02-459-6332
쌍봉동협동사회복지관	02-681-7179
안신무한돌봄센터	031-481-2621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3414-3346
목련어린이집	02-3412-1999
부암어린이집	02-396-6226
일원어린이집	02-459-3221
증평어린이집	02-364-7534
청마을어린이집	02-459-6335
문화, 일자리사업	
밀알아트센터	02-3411-4661
청밀유통	02-459-6860

[해외사업장]

네팔	977-1-431-5485
라이베리아	231-88-06-668007
마디가스카르	261-2022-44496
말라위	265-88-1378-651
에티오피아	251-911-00-33-24
중국	86-133-0448-7401
태국	66-86-191-6122
필리핀	63-928-520-8213
www.miral.org 밀알복지재단	

한 알의 밀알

Vol.29 / 2012. 두번째
www.miral.org

I love Malawi

아프리카의 따뜻한 심장 말라위
빵을 들고 행복해 하는 은코마지역의 아이들과
그곳에서 만난 장애인들의 삶

Highlights 2011

2011년 밀알의 하이라이트 7가지

Miral Letter

홍정길이사장과 밀알의 30년

Star Interview

배우 윤지민의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당신의 따스한 눈빛, 사랑이고 희망입니다.

한알의 밀알

Vol. 29 / 2012. 두 번째

www.miral.org

- 
- 03 Miral Highlights 2011
 - 04 밀알서산 – 3정들이사장과 밀알의 30년
 - 06 밀알의 숲 – 해외이야기
 - 08 밀알의 꽃 – 국내이야기
 - 10 밀알소리 – 빛만 느낄 수 있는 아이, 민서의 꿈
 - 12 나눔, 그 후 – 3분마다 비명을 지르던 준빈이, 그 후
 - 13 나눔흔적 – 우리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 14 lamp의 조금 특별한 소풍 – 좌충우돌 지하철 타고 서점가기
 - 18 밀알인터뷰 – 장지윤교사와 통합보육, 그리고 밀알과의 만남
 - 20 칼럼 – 배롱나무(목백일홍)의 수난
 - 22 스타인터뷰 – 당신의 따스한 눈빛, 사랑이고 희망입니다
 - 24 Now Miral – 밀알소식
 - 27 결산내역보고 (2012년 1~2월) / 회원공지

겨울과 여름사이
그 따뜻함 속에서
바래본다

순조로운
축복
기쁠
웃음일



| 표지설명 |
말라위의 은코마지역의 아동들이 나눠준 빵을 들고 밝게 웃고 있다.

02

| 섭기는 사람들 |

이사장_홍정길 / 상임이사_정현석 / 이사_김영희, 김수지, 김종인, 김주영, 김준수, 노상현, 박한철, 배윤규, 손봉호, 이민우, 정현민, 정현철 / 명예이사_김귀자, 강형옥 / 감사_김재훈, 신명철, 황호찬 / 실행위원_강영실, 강태인, 강한주, 권중돈, 김귀자, 김영희, 김영희, 김혜경, 남한주, 류제룡, 박동수, 박소영, 신민선, 심장석, 이유진, 임종학, 정태웅, 정현석 / 전문위원_김두현, 김미옥, 이천화, 전승만 / 제호_한 알의 밀알(통권29호) / 발행처_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 발행일_2012년 3월 11일 / 편집기획_밀알복지재단 홍보팀 / 주소_156-884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17 한글오피스 5층 28 / TEL 대표번호 02-3411-4064 / 회원전용 1000-0966 / FAX_02-341-4779 / 디자인_이름디자일 / 능력나눔 : 사진_정지영 시판동화_김세희 lamp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Miral Highlights 2011



1.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함께하는 재단' 설립

밀알복지재단은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인 굿윌사업의 전문성과 활성화를 위해 법인 기 본재산 18억 원을 출연하여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재단을 2월 1일 설립하였다.

함께하는 재단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굿윌스토어, 탈북민 취업지원센터, 공동생활 가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을 위한 굿윌스토어 밀알 송파점 개관

밀알복지재단이 수탁운영하는 서울시미래형 중대형직업재활시설인 굿윌스토어 밀알 송파점을 5월 23일 개관하였다. 굿윌스토어 밀알 송파점은 장애인근로작업시설로 기업과 교회 등에서 기증한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시설이다.

3. 장애아동 토요학교 실시 (6개 지역)

2011년 3월, 노는 토요일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임되는 경우가 많은 저소득 가정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아동토요학교'사업이 6개의 각기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4. 해외사업국 7개국으로 확대

밀알복지재단은 2011년 총 7개국으로 해외사업국을 확대했다. 마ダ가스카르, 말라위, 에티오피아, 네팔, 태국, 중국, 필리핀 총 7개국에서 빈곤아동교육지원, 식량지원, 이동진료, 장애인직업재활사업 등 활발한 사업을 펼쳤다.

5. 방송모금 시작

밀알복지재단에서는 2011년 5월부터 본격적인 방송모금 활동을 펼쳤다. SBS희망TV 등과 함께 진행한 방송모금을 통해 더 많은 국내·외 아동들을 지원하게 되었다.

6. 후원회원 3만명 돌파

밀알복지재단은 약 30년간 장애인복지를 시작으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이웃을 섬기기 위해 사업을 해 왔으며, 그동안의 사업이 뿌리를 뻗어 밀알복지재단을 후원하는 회원이 3만명을 돌파하게 되었다.

7. 2명의 홍보대사 위촉

2011년 밀알복지재단에 2명의 홍보대사가 위촉되었다. 아프리카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돌아온 배우 이필모와 가수 박수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밀알복지재단의 국내·외 빈곤아동 및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홍정길 이사장과 밀알 30년

정 형 석 상임이사



이사장 홍정길 목사께서 70세를 맞이하여 20년 동안 목회하였던 남서울은혜교회를 2월 중순에 사임하였다. 남서울은혜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 밀알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 후원교회이다. 그 중심에서 서서 감동적인 사랑과 희생적인 봉사로 현신하였던 홍 목사의 밀알사역 30년을 정리해 본다.

홍정길 목사와 밀알의 인연은 1981년에 시작되었다. 홍 목사는 밀알복지재단의 모체인 밀알선교단 창립 2주년 감사예배 때 설교자로 와서 인연을 맺은 후에 밀알의 든든한 후원자와 지도자가 되어 밀알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섭기고 있다.

세상을 바꾼 밀알학교 설립운영

홍정길 목사는 장애아동을 위해 이 땅에 밀알을 심어 주었다. 자폐아동이 다닐 수 있는 특수학교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장애아동 부모의 눈물어린 호소에 반응하여 밀알과 함께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은 기적과도 같다.

1995년, 우리 밀알은 남서울교회의 현금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밀알학교 건축을 시작하려 하였으나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홍 목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밀알학교를 건축하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에 현신하기 위해 남서울교회를 사임하였다. 그리고 적금과 퇴직금 등을 현금하고, 학교건축에 앞장섰다.

구청장은 주민들을 의식하여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건축법이 개정되도록 설리하셨다. 허가권자가 교육감으로 바뀌었다. 서울시교육청 건축허가 1호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도 주민들이 물리적인 반대는 계속되었다. 우리는 할 수 없이 법적인 소송을 하였다. 드디어 승소판결이 나왔다. 이는 한국 장애인 복지의 전환점이 된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



밀알학교 준공식의 홍정길이사장



밀알학교 전경



밀알아트센터 세라미 플래스홀



밀알학교 내부모습

게 되었다. 밀알이 제기한 공사방해중지가처분이 주민들의 반대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첫 사례를 만들었다. 이후에 체육관, 음악당, 다양한 크기의 강의실, 카페 등이 갖추어진 아트센터까지 건축하여 추가로 기부하였다. 약 300억원이면 자신들을 위한 훌륭한 예배당을 건축하여 자유롭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장애인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밀알학교를 건축하여 특별한 조건 없이 기부하였다.

장애인 가족들에게 희망을 준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이렇게 설립된 밀알학교는 어느새 10년이 훌쩍 지나갔다. 홍 목사는 특수학교를 졸업하여도 갈 곳이 없는 장애인의 어려운 형편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 강남구직업재활센터를 수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었다. 강남구직업재활센터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직업재활시설로 보호작업장 3개소 외에 주간보호소, 정보화교육실, 체력단련실 등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종합복지시설이다. 홍 목사는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인 굿윌(Good Will) 스토어를 2011년 수탁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었다. 현재 50여명의 장애인들이 희망을 키우며 일하고 있다. 굿윌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부 받아 수선과정을 거쳐 매장에 전시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유통사업이다. 장애인에게 자선이 아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복지 및 환경운동이다. 짧은 기간에 정부로부터 성공적인 평가를 받게 되어 복지부와 서울시의 지원으로 금년에 굿윌스토어 도봉점이 추가로 개원될 예정이다.



홍정길 목사의 밀알정신

하나님께서 홍정길 목사님을 통하여 밀알이 이렇게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이유는 밀알의 주제 성구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밀알정신이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홍 목사의 최대 장점은 돈이나 명예를 탐하는 이기적인 욕심이 없고, 더 나아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시는 회생과 겸손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는 홍정길 목사의 이러한 영적인 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밀알영성을 토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이웃을 제대로 섬기므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한다. 끝으로 밀알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신 이사장 홍정길 목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쉬운 은퇴를 맞이하여 축하를 드리고 이후의 삶이 더욱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기원한다.



속도하는 홍정길이사장



좌측부터 정형석상임이사, 홍정길이사장



아프리카의 따뜻한 심장 말라위



글·사진_ 말라위 정문수지부장

아프리카의 따뜻한 심장 말라위. 그리고 장애인

밀알복지재단 말라위(Malawi)지부는 아프리카의 따뜻한 심장 말라위의 유서 깊은 선교지 온코마(Nkhoma)를 중심으로 주변 6개 마을의 그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라위 지부는 현지 지역주민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이 곳의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구호하고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임 지부장 정문수입니다

말라위 프로젝트는 이미 1년 여 전부터 대양간호대학 총장으로 사역하고 계신 김수지 이사님과 지금은 독일로 가신 이선희 선교사님의 헌신적인 지원과 노력을 통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김수지 이사님은 병원과 간호대학 운영으로 바쁜 와중에도 릴롱궤(Lilongwe) 지역의 장애인 그룹을 직접 관리하시면서, 말라위 지부의 크고 작은 일에 신경을 써 주시고 있습니다. 현재 말라위지부의 지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저는(정문수) 아내(김명자)와 함께 말라위에 지난 해, 12월 말에 도착해서 이제 겨우 한 달 여 밖에 되지 않은 신임 지부장입니다.

직업재활

온코마 그룹은 매주 월, 수, 금요일의 모임을 통해 모든 멤버들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직업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철로 각종 그릇을 만드는 틴 스미스, 목수, 뜨개질, 둑자리와 소도구를 만드는 수공예, 그림을 그리는 아트, 옷을 만들고 수선하는 미싱,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합류한 신발수선 등의 일을 배우며 최종적으로 자립을 꿈꾸고 있습니다.

가축분양

온코마 주변의 5개 마을 그룹은 직업재활이나 식량구호로부터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걸어서 2시간 가까이 되는 거리상의 제한도 있고, 대부분 아이들과 가족들을 돌봐야하는 과부들이기에 모임에 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들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공동으로 돌보며 키우고, 새끼를 낳으면 다시 마을의 그룹 멤버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돼지와 염소 등 가축을 키우는 일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을마다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어미 돼지가 2마리씩은 되고, 움 제레마 마을은 9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걀을 얻을 수 있는 닭을 키우길 원하고 있습니다. 가축 사육은 주변 마을 그룹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구호

가장 흔한 질병인 말라리아부터 손, 발 등에 입은 상처들을 방치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는 일이 흔한 것이 아프리카의 현실이고, 더군다나 수입이 없어 치료를 받을 길 없는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의료비 지원은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생명을 구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

각 그룹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며 모임에서 한 끼 씩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코마 그룹의 경우는 매주 월, 수, 금요일의 모임에서 그룹 멤버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의 경우에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노동력이 생계에 필수적인 물자들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말라위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우리 멤버들이 한 끼를 식사를 제공받는 것은 대단히 큰 혜택입니다.

제분소 건축

말라위 사람들은 옥수수 가루로 쑤어 무른 빵처럼 군힌 시마를 주식으로 먹습니다. 따라서 옥수수를 빻아 가루로 만드는 제분소는 생활과 밀접한 시설입니다. 온코마에 제분소를 짓고 운영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다시 현지의 장애인들을 지속적으로 돋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2월2일에 기공식을 마치고 제분소를 건축중입니다.



사회적기업 청밀

일자리를 나누어 드립니다. 행복을 나누어 드립니다.

청밀은 사랑과 나눔의 밀알복지재단 정신을 바탕으로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식자재유통, 판매 등을 영업활동으로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2008년에 설립된 청밀은 식자재유통사업을 통해 사회복지기관, 어린이집, 각종 시설 등에 식자재를 납품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그로인 한 수익을 통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일자리창출 서비스를 펼친 결과 지난 2011년 12월에는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지역사회에 발전을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의 본이되는 모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식자재유통, 농산물전처리, 유통마케팅을 통한 일자리사업

청밀의 사업은 식자재유통, 농산물전처리, 유통마케팅을 통한 일자리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식자재사업은 대기업과의 연계시스템으로 최고의 품질, 식품의 안전성, 가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내에 사회복지기관, 교회, 학교, 병원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대기업의 농산물전처리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양지집배센터에서는 지역을 위해 착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한부모 가정들에게는 일하는 즐거움을 통해 더불어 성장하는 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취약계층이 자속 가능한 일자리로 인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기관을 더욱 개발하고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구매=후원, 밀알스토리

청밀의 대표적인 브랜드는 밀알스토리입니다. 밀알스토리는 온라인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후원쇼핑몰입니다. 이미 이름이 잘 알려진 브랜드의 각종 공산품이나 친환경 유기농 상품, 계절 식품, 사무용품 등을 시중가의 5~20% 저렴하게 판매하고 또한 상품을 구매할 때마다 일정금액이 후원금으로 적립되어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 사례 또는 기관에 후원하는 쇼핑모델입니다. 필요에 의해 구매한 상품이 동시에 기부에도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밀알스토리의 놀라운 장점입니다. 밀알스토리에서 구매하는 것은 후원입니다. 작은 실천이 기부와 연결이 되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외된 계층이 더 넉넉해집니다.



사회적기업인 청밀에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 ① 밀알스토리와 청밀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식자재 납품을 통해 협력하는 것이 가장 큰 후원입니다. 그것을 통해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이 다양한 일에 종사할 수 있고 그로인한 수익으로 다양한 사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② 생필품, 의류 등 어떤 물품의 후원도 환영입니다. 이러한 물품들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바자회로 지역 내 사회복지 기관과 협력하여 판매하고 취약계층을 판매원으로 파견할 수 있습니다.
- ③ 전문성, 재능 후원입니다. 우리 사회적기업은 전문가의 재능이 필요합니다. 홍보, 마케팅, 웹디자인, 컨설팅 등 자신의 재능과 기술을 나눔 활동에 동참하여 사회적 목적이 실현되는 일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습니다.



빛만 느낄 수 있는 아이, 민서의 꿈

민서야, 유전병만 아니었다면 밝고 건강하게 자랐을 내 예쁜 아이.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 고통만 겪는 너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무너져.
하지만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서 행복”하다는 너로 인해
이 엄마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엄마도 “행복”을 선물한 내 아들 민서의 엄마로 태어나서 감사해.



빛 속에서 피어나는 민서

빛만 느낄 수 있는 따스한 아이 민서(12세, 남) 태어난지 8개월만에 망막모세포증이라는 암이 발견되어 오른쪽 안구를 적출하게 되었습니다. 한 쪽 눈으로 본 민서의 세상은 엄마 그리고 행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티 없이 밝고 속이 깊은 민서에게 찾아온 두 번의 재발과 항암치료, 나머지 한쪽 눈도 시력을 잃어가고 항암치료로 기력을 잃은 민서는 3학년 1학기를 마지막으로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두 번의 재발이 있기 전 민서는 학급회장, 반장 등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활동을 했고, 시각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고로 비행기와 헬리콥터를 만드는 등 손재주가 뛰어나고 매사에 적극적이었던 민서는 엄마의 즐거움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엄마, 난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서 행복해

민서와 같은 병으로 6살 때 안구를 적출했던 엄마. 민서의 병이 자신의 유전때문임을 알게 되고 엄마는 마음에 명을 이고 살아왔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려 살이가던 가족은 민서의 암이 발견된 후 갈등을 겪게 되었고 결국 남편과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한 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떠난 남편과 아픈 아들... 모든 것들이 마치 엄마의 잘못 때문인 것만 같아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엄마를 일으켰던 것은 마음이 깊은 민서.

“엄마, 난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서 행복해!”

어둠 속에서 느끼는 밝은 세상

얼마 전 시각장애인 학교를 다니게 된 민서. 민서는 빛나는 눈으로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울꺼예요” 말합니다. 빛만 느낄 수 있는 민서는 오늘도, 내일도 꿈을 끊습니다. 세상을 볼 수 없다고 세상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서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느끼는 세상은 밝기만 합니다.

자켜주고 싶은 민서의 희망

민서는 정기적으로 암의 재발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정기검진 비용과 치료비, 교통비가 필요하지만 정부보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민서네 형편으로는 어렵기만 합니다.

또 다시 암이 재발한다면 남은 한쪽 눈도 적출해야 합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꾸준히 검진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가 되어 세상 한 모퉁이를 밝게 할 민서의 희망,

여러분들이 지켜주세요.



| 후원신청문의 | 02-3411-4664

| 후원계좌 | 우리은행 322-058119-13-001, 신한은행 140-006-896511

예금주 : 밀알복지재단

3분마다 비명을 지르던 준빈이, 그 후



2011년 2월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개 되었던 '3분마다 비명을 지르는 아이, 준빈이'

8살이었던 준빈이는 어느 날 갑자기 사물을 구분하지 못하고 움직임이 느려지면서 시력과 청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생각도하지 못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3분마다 온 몸에 쥐가 나 그 고통을 훌로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던 준빈이. 1년 동안 밀알과 함께 했던 준빈이는 후원자님들 덕분에 밀알과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준빈이를 발견했을 당시 준빈이는 10종의 아미노산을 복용해야 했지만 매월 88만원을 감당할 수 없어 아미노산을 복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준빈이가 걸린 로렌즈오일병을 알고 있다며 준빈이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시작하신 후원자님, 회사를 창업한지 1년이 되지 않아 어려운 형편에도 온 직원이 힘을 모아 기저귀를 후원하고 직접 편지까지 써서 보내주셨던 후원자님들, 너무 조금 후원해서 미안하다며 '내가 크면 더 많이 도와줄게.' 하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후원했던 어린 후원자님들, 후원자님들이 있어 8살 어느 날 시간이 멈춘 준빈이의 시간은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6명의 결연후원자님들과 그 외의 물품, 온라인의 콩, 토토리 등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작은 것부터 시작해 세상을 변화시키기에도 충분한 힘! 그 사랑을 실천해 주신 분은 바로 후원자님 이십니다.

1년이 지난 준빈이는 3분마다 찾아오던 고통이 줄어들고 있으며,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던 준빈이가 이제 밥을 잘 먹어 몸무게도 늘었습니다. 또한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던 준빈이가 이제 스스로 팔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간 준빈이는 제 나이의 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밀알복지재단의 지원과 업체의 후원
으로 2010년 9월부터 92만원 상당의
아미노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2011년 2011년 1월부터 4월,
7월까지 한 달에 한번씩 30일간 사용
할 양의 기저귀를 지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골 5:18)



제닝나누미스트 김서희

아동이름: Abraham Demelash
민족: 경

- Hello! Abraham Demelash
- My name is You have son
- I'm 8 half years old.
- My job is student
- I like happy
- My family father, mom, & sister
- My birthday 2004. 11. 25
- My dream painter an artist
- Good - by See you again

I will always think you everyday

(여동이 세로 판이로 수고해 영어로 써주셔요.)

나녀

Abraham Demelash

내 이름은 민유경 이야

나의 가족은 아빠, 엄마,
누나 그리고 형이 있어.

내 꿈은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야.

Endhasabi
아동이름: Testaye
민족: 김문화

- Hello! Endhasabi Testaye
- My name is sun hee - kim
- I'm thirty-one years old.
- My job is housewife
- I like
- I am very glad you're going to know.
I'm introduce you to our family.
- Now my husband and son have
a mistress. bitch
- happiness and blessings to you always
and their sons and healthier families
I will always think you everyday

(여동이 세로 판이로 수色泽 한글로 써주세요.)

Endhasabi Testaye

내 이름은 김문화야

너를 알게 돼서 정말 기뻐.

우리 가족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이 있어.

너에게 항상 행복한 축복이 있
기를 바래.

그리고 너의 엄마와 가족이 더
건강해 지길 기도할게.



좌충우돌 지하철 타고 서점가기

조금 특별한 소풍

글·사진_ bmp

이 이야기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이 되어 떠나 본 짧은 여행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를 짚어가며 소풍을 떠날 분들에게 편지를 쓰는 기분으로 이 코너를 연재하려 합니다. 먼저 가본 소풍이 장애 때문에 겪게 될 불편을 조금 덜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후니는 별씨 몇 군데에 전화를 걸었지만 별 소득 없이 전화를 끊어야만 했다. 급하게 외출을 도와줄 사람을 찾는 중이었다. 집에는 아무도 없이 혼자이고 여자친구는 일하는 중이라 도와 줄 수가 없었다. 몇몇 아는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 보았지만 갑작스런 부탁에 시간을 내어줄 사람을 찾기란 쉽지가 않았다.

사실 후니에게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건 아니었다. 다만, 갑자기 책이 읽고 싶어졌고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책을 사 읽지 않으면 또 한동안 책을 읽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서둘러 서점에 가려는 것뿐이었다.

‘그래, 혹시 그 녀석이라면 시간을 내 줄지도 몰라.’

후니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후니의 단짝이었기는 했지만 후니가 선뜻 전화하지 않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 친구에게는 앞을 볼 수 없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이제 전화 할 데라곤 그 친구뿐이어서 후니는 결국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다.

“여보세요? 용호야?”

“어, 웬일이야?”

“혹시, 나랑 서점에 책 사러 안 갈래?”

“휠체어 타고 무슨 서점이야! 그냥 인터넷으로 사!”

용호는 영 내키지 않는 말투였다. 휠체어를 탄 친구와 눈이 안보여 더듬거리는 자신이 사람이 많은 서점에 간다면

사람들이 신기한 듯 쳐다볼 게 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니의 목소리는 철박했다.

“책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사. 부탁이야 같이 가자.”

몇 번을 거절해도 소용이 없었고 용호는 결국 승낙을 하고 밀었다.

“그럼 삼십분 뒤에 공원에서 봐.”

“용호야 어서 와!”

공원에 이르자 후니가 먼저 와서 용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후니의 휠체어에 다가간 용호는 자신의 눈과 같은 지팡이를 접어서 후니에게 맡기고 대신 후니 휠체어의 손잡이를 잡았다. 이제 그 손잡이를 꼭 잡고 후니가 이끄는 대로 잘 따라 가야만 했다.

“자, 이제 가보자고.”

용호가 밀어주자 후니의 휠체어는 전보다 가볍게 나아갔다. 그렇지만 그것도 잠시 뿐이었다. 만나면 늘 그랬던 것처럼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휠체어는 빠걱거리며 이리갔다 저리갔다 했다.

“야, 턱 있는 곳에서 세게 밀어야지!”

“내가 네 조수나? 앞에 뭐가 있는지나 똑바로 말해!”

그렇게 싸우며 지하철역에 도착했다. 일부러 사람들이 들판 시간을 골라 지하철을 타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많으면 어쩌나 둘 다 걱정이었다.

“그런데 표는 어디서 사냐?”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 본 용호는 문득 표를 사는 일이 걱정 되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용호에게 표를 사고 개찰구를 빠져 나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야 요즘은 다 카드를 대고 다녀. 표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후니는 어리둥절해 하는 용호에게 편장을 주고 휠체어 바퀴를 굴렸다. 용호는 휠체어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다. 후니는 일화용 교통카드를 사서 용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먼저 개찰구를 지나 들어간 뒤 용호가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오른쪽으로 조금 더! 그렇지 그대로 앞으로. 이제 카드를 대고 들어오면 돼.”

후니의 코치를 받은 용호는 뒤통거리며 개찰구를 지나 열차를 타려 갔다.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어렵지 않게 플랫폼까지 갈 수 있었다. 아직 봄비는 시간이 아니어서 그런지 사람은 많지 않았다. 곧 열차가 도착하고 서점이 있는 역까지는 편안하게 갈 수 있었다. 그런데 내리는 역에는 예상 외로 사람이 많았다. 후니와 용호는 잔뜩 긴장을 했다. 사람들이 내리기도 전에 밀려들어오면 내리지 못할 수도 있었다. 문이 열리고 서 있는 사람들이 다 내리기도 전에 한 아저씨가 사이를 비집고 열차로 들어왔다. 자리에 앉으려는 마음이 급해서였을까? 휠체어를 보고도 거침없이 들어와 자리를 찾으며 두리번거렸다. 설상가상으로 뒤에 있던 사람들도 밀려들어와 도저히 나갈 틈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안되겠다 싶었는지 후니가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용호야 밀어!”



후니의 소리에 뒤늦게 휠체어를 본 사람들이 물려서 주었고 문이 닫히기 직전에 후니와 용호는 열차에서 내릴 수 있었다. 그제야 둘은 한 숨을 내쉬었다.

“아휴, 큰일 날 뻔했네.”

“그래, 얼마나 긴장했는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네.”

후니는 능정스럽게 씨익 웃더니 갑자기 혼자 휠체어를 밀고 화장실로 가버렸다. 용호가 사태를 파악했을 땐 후니가 벌써 저만큼이나 멀어진 뒤였다.

“야, 혼자 가면 어떡해!”

뒤늦게 후니를 불러봤지만 후니는 어찌나 급했던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화장실로 쑥 들어가 버렸다. 용호는 하는 수 없이 바닥에 설치된 볼록한 안내블록을 지팡이로 더듬으며 후니가 있을 화장실을 찾아가야만 했다. 안내블록은 길을 알려주기는 했지만 화장실이 어딘지는 알려주지는 않았다. 용호는 겁에 질렸다. 옆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용호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다. 용호는 사라진 후니를 찾기 위해 한참동안이나 역 안을 헤매고 다녀야만 했다. 용호는 놀이공원 미아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젠 어떡해야하나 도와달라고 소리라도 질러야하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다.

“아, 시원해. 용호 너 여기 있었어?”

후니였다. 후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타나서는 길 길을 재촉했다. 용호는 무척이나 화가 났고 괜히 후니와 함께 왔다는 후회를 했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도 없었다. 게다가 후니 없이는 집에 돌아갈 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투덜거리지도 못하고 꾹 참아야만 했다.

“에잇 뭐야. 이쪽으로는 갈 수 없잖아.”

지하철 안내판에는 서점으로 바로 연결되는 출구가 표시되어 있었지만 휠체어를 탄 후니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휠체어를 탄 채로는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을 오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후니는 속으로 다른 길이라도 갈 수 만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길이 좁아서, 계단이 가로막아서, 바닥이 험해서 가지 못했던 곳들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후니와 용호는 마침내 서점에 도착했다. 후니는 신이 나서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책을 읽을 수 없는 용호는 주뼛주뼛 후니를 따라다닐 뿐 달리 할 일이 없었다.

‘아, 용호는 책을 볼 수 없지.’

후니는 뒤늦게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집어 드는 책마다 어떤 내용의 책인지 용호에게 이야기 해주기 시작했다. 그럼이나 사진이 나온 곳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신기한 이야기가 가득한 책을 발견하고는 한참동안이나 내용을 읽어주기도 했다. 후니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용호의 언짢았던 기분도 슬며시 풀어지고 있었다.

Tip_

일회용 교통카드 판매기에는 음성안내가 지원되어 역무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버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Tip_

휠체어를 위한 열차 칸에는 별도로 휠체어 그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칸에는 휠체어가 서 있을 공간과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Tip_

대형 건물의 회전문에는 회전을 천천히 하는 버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휠체어를 타고 문을 통과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이번 소풍에서 후니는 휠체어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응호는 눈을 가린 안대를 한 번도 벗지 않은 채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시간동안이었지만 여행이 끝난 뒤에 들은 녹초가 되어버렸지요. 특히 어떤 점이 힘들었나 들어볼까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 답답해요.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럽지요. 그리고 정말 힘든 건 오르막이었어요. 아주 완만한 경사라도 휠체어를 밀고 가려면 여간 힘이 드는 게 아니지요. 처음 휠체어를 탔을 땐 경사로에서 휠체어가 뒤로 넘어가 크게 다칠 뻔했지요. 그나마 오늘은 친구가 뒤에서 밀어주고 수다도 멎 수 있어서 아주 편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

후니's interview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 눈앞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나 또 어떻게 가야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멋지게 지하철역을 꾸미고 예쁘게 열차를 만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안전하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불과 한 정거장을 가는데 사십분 이상이 걸렸는데 한 겨울인데도 땀이 날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

응호's interview

lamp, lamp는 세상을 밝히고 따뜻하게 하자는 의미로 7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입니다. lamp의 봉사자들은 실제 장애인이 아닙니다. '조금 특별한 소풍'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장애인이 겪을 어려움들을 체험해보고 실제 장애인이 된 것 같은 마음으로 쓴 여행기입니다. 장애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이 코너를 연재하려 합니다.



는 한결같이... 장지윤교사와 통합보육, 그리고 밀알과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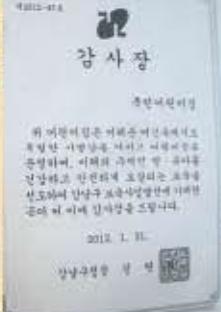
밀알 _ 어릴 적의 장지윤 선생님은 어땠나요?

장지윤 _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께서 산동네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삼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사회생활을 하였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보육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고나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생활하다보니 공부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해서 유아교육과로 입학하게 되었고, 교회학교에서 만났던 두 아이와 보육교사로 일할 때 학급에서 만났던 한 아이로 인해 졸업 후에 장애아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재활학과로 편입하여 공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장애아 통합교육이라는 환경에 새로운 발걸음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통합교육을 하면서 이정도면 원가 좀 알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대학원에서 유아특수교육전공을 마쳤는데도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저의 생활신조는 '는 한결같이 살자입니다. 제 자리 걸음의 의미가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하는 삶의 태도가 한결같기를 바라고, 만나게 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만나게 되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갖고 살자는 뜻입니다.

밀알 _ 주로 하시는 업무는 어떤 건가요?

장지윤 _ 5~6년 전에 장애유아가 학급에 참여하도록 직접적으로 교육하고, 장애유아의 부모님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학급 밖으로 나와서 학급 내에 있는 교사(장애전담교사)를 지원하면서 장애유아와 부모를 함께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유아에 대한 대기 상담과 지원 방향에 대한 상담을 원장님



06:20 기상 및 출근 준비 >> 07:00 ~ 08:20 출근(어린이집 도착) >> 08:20 ~ 21:30 일정 확인 및 어린이집 업무 >>
21:30 ~ 22:00 퇴근(귀가) >> 23:00 ~ 24:30 씻고 일정 정리하기 및 취침

을 도와서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련어린이집의 장애아 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외부 기관의 관심이 높아보니 기관방문 의뢰와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밀알 _ 가장 기억에 남는 아동이나 학부모가 있다면요?

장지윤 _ 제가 목련에서 2년차 때 만난 남자 아이인데.. 생활연령에 비해 참 더디게 크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사회적 지위를 과감하게 버리고 아이의 발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셨는데, 어머님의 기대에 보다 많이 천천히 발달해서 옆에서 보기 정말로 안타까웠습니다. 아이는 많은 전문가들에게 교육을 받아 왔던지라 어머님께서 이제 2년차인 저를 믿고 맡기기에 불안한 점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때 제가 많이 작아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어머님께 믿고 따라와 달라고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다행히 어머님께서 저를 믿고 많이 협조해 주셨어요. 두 달 가량 주제 안에서 가정과 연계하여 함께 지도하면서 아이에게 약간의 변화를 보게 되었고, 어느 날 어머님께서 오셔서 제 손을 꼭 잡고 '선생님! 됐어요. 우리 아이가 드디어 했어요. 2년 동안 가르쳤던 것을 알려주신 방법대로 계속 지도했더니 되더구요. 감사해요'라고 말씀하셔서 함께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아이에 대한 교육이 연계성을 갖도록 어머님께 부탁드린 것을 잘 활용하셨기 때문에 아이에게 변화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정연계, 가정의 협조를 생각하면 그 친구와 어머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밀알 _ 장지윤선생님께 목련어린이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장지윤 _ 목련은 기회와 성장을 준 곳입니다. 장애전담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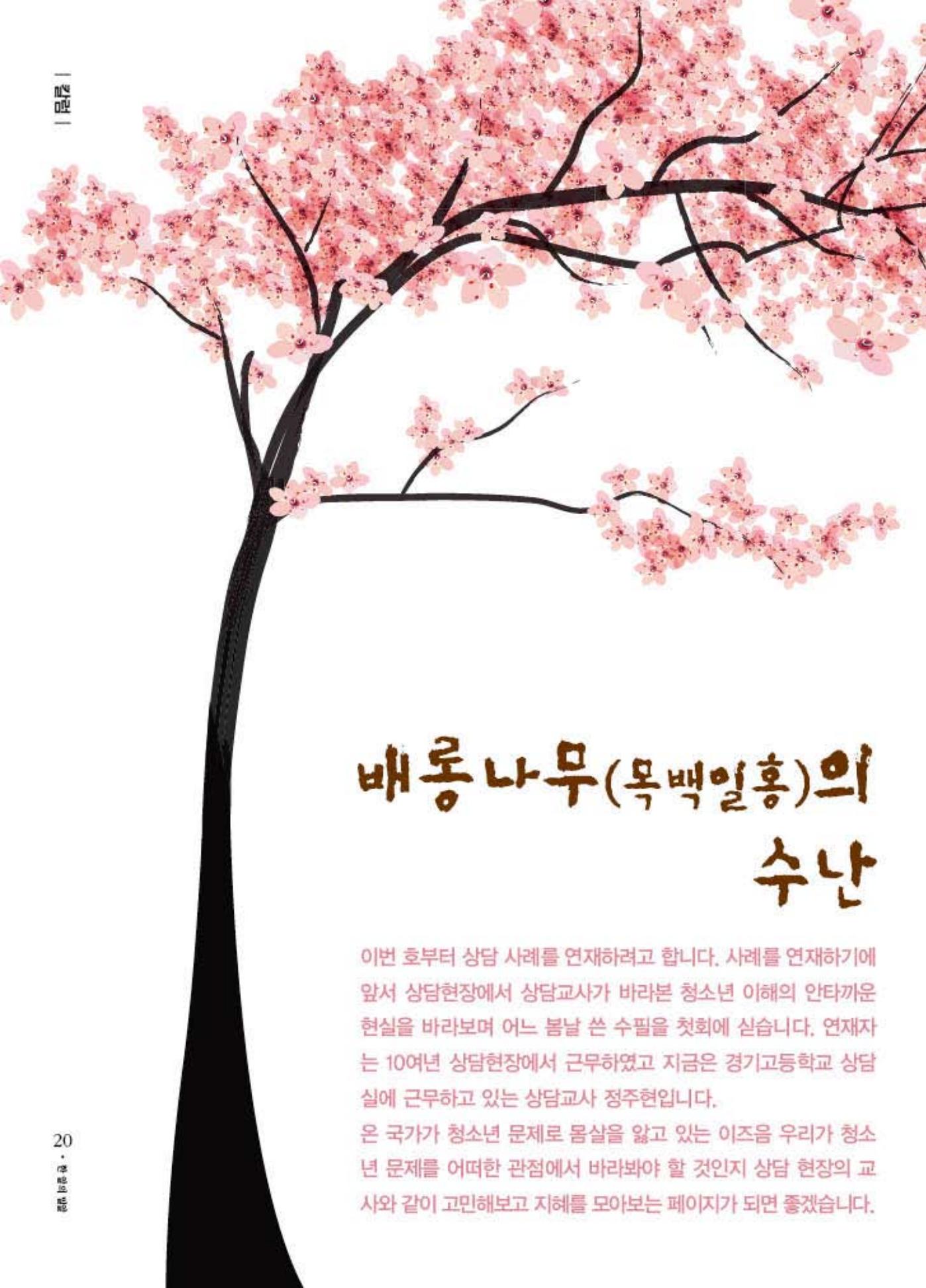
로 늦게 발을 디디기는 했지만, 아이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IEP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부족하지만, 목련어린이집에 일하면서 세 번 정도 집필에 참여하는 영광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목련은 실천과 나눔을 가르쳐준 곳입니다. 장애아들과 '함께'라는 통념적인 것을 단순한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라 참여가 있는 통합이라는 것이 실제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 목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이 확대되기를 소망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나눔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천하고 그 과정에서 알아낸 노하우를 나누는 삶을 배웠습니다.

목련은 정직함을 가르쳐준 곳입니다. 목련에 있으면서 윤리적인 면이나 투명성적인 측면에서 앞으로의 삶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쁜 일정이지만 늘 한결같이... 그리고
늘 최선을 다하는 장지윤선생님이었습니다.
목련어린이집에서 장애아통 참여라는 크고도 빛나는
촛불을 켜고 있는 장지윤선생님은
오늘도 아이들을 향해 방긋 웃어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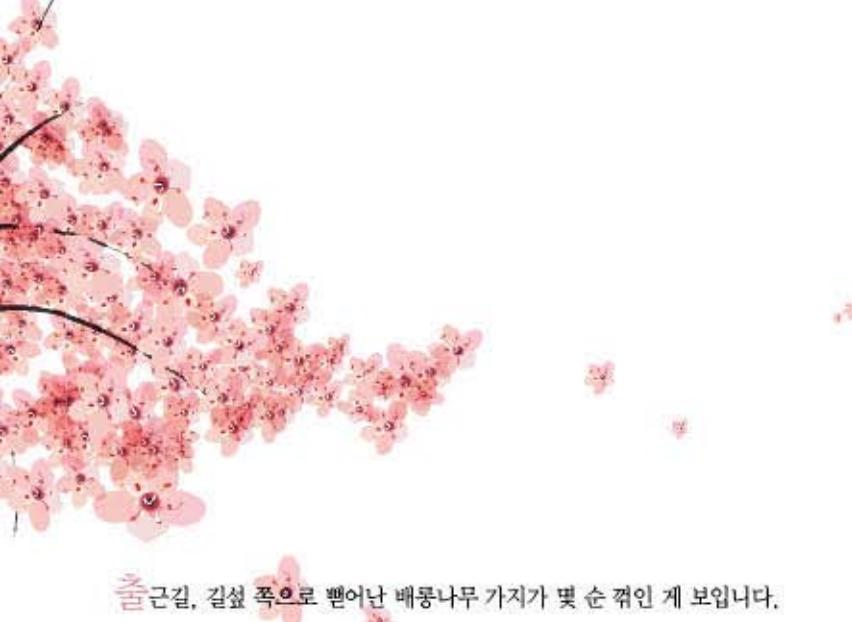
밀알인터뷰 공간은 함께 걷고 있는 직원들의 인터뷰가 개재될 예정입니다.



배롱나무(목백일홍)의 수난

이번 호부터 상담 사례를 연재하려고 합니다. 사례를 연재하기에 앞서 상담현장에서 상담교사가 바라본 청소년 이해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어느 봄날 쓴 수필을 첫회에 실습니다. 연재자는 10여년 상담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지금은 경기고등학교 상담실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교사 정주현입니다.

온 국가가 청소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즈음 우리가 청소년 문제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인지 상담 현장의 교사와 같이 고민해보고 지혜를 모아보는 페이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출근길, 길섶 쪽으로 뻗어난 배롱나무 가지가 몇 순 꺾인 게 보입니다.

얼핏 보기엔 고사목처럼 보이는 꺾인 가지가 붉은 선혈은 아니었어도 생명력이 분명한 담록의 생체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절은 벌써 봄기운이 완연하여 온갖 만물이 소생하는 몸짓으로 분주하건만 아직도 씩을 틔울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는 이 나무가 추운 겨울을 못 견디고 말라죽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려는 마음이었거나, 아니면 따스한 봄볕이 모두를 깨우건만 아직도 계으른 늦잠에 빠져 있는 모습을 질책하고픈 마음이 그 여린 가지를 꺾은 듯 했습니다. 이제 머잖아 백일 동안이나 정열의 홍색(목백일홍)으로 여름을 장식할 가지들이건만 조금 기다려주지 못하는 손길에 의해 무참히 해를 입은 거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청소년들의 아픔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 해 입은 배롱나무처럼 조금 참아주지 않거나, 무한한 그들의 가능태를 신뢰하지 않음에서 비롯되는 거로구나라는 생각에까지 이른 거지요.

누구든 자신의 문제에서만큼은 자기 자신 이상의 전문가는 애시 당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삶에 지쳐 갈등 가운데 처한 청소년들과 대화하다보면 누구보다도 자신의 문제를 염려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이건만 도움이 절실할 때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와야 할 사람이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적절한 도움이 아니다 보니 처음엔 호미로 막아도 될 일들이 나중엔 가래로도 막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러 참으로 안타까웠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그들에게는 제법 고개 끄덕거려지는 자기 의견과 성장 동기가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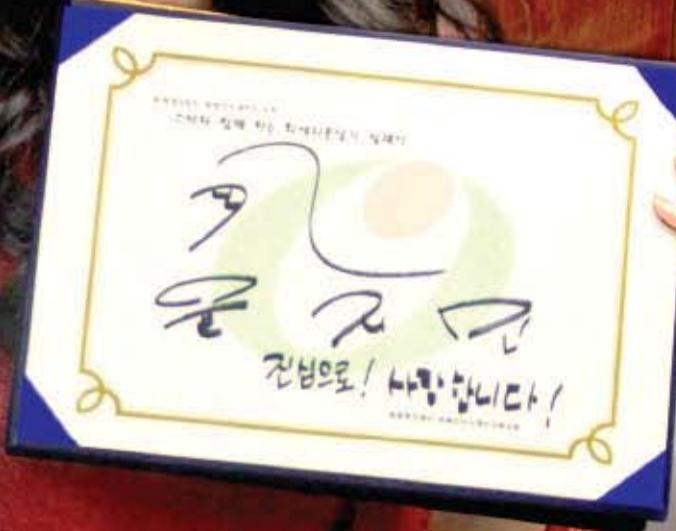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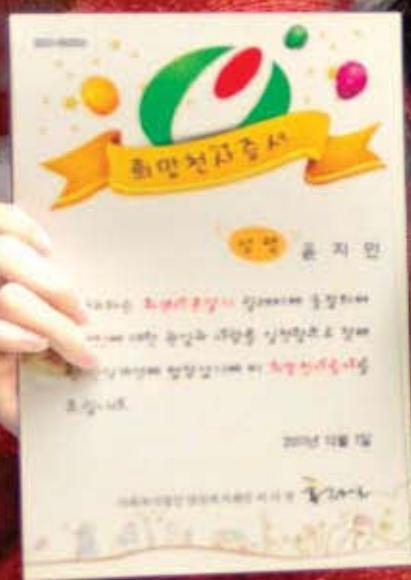
청소년들은 보다 충동적이고 쉽사리 약점을 드러냅니다. 그러기에 차분히 들어보고 난 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침아줄 건 참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도 나름의 자생력은 분명 있으므로 그저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 주는 어른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어느 사회나 당장은 앞서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서가는 이들만 바라보며 조금 더딘 현실만을 조급해하지 말고 더디지만 늦되는 성공 사례를 기대해 보는 겁니다.

이전 기성세대에 비해 우리 자녀들의 생활 습관에는 어설픈 구석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기에 늦잠 잔다고, 공부 덜한다고, 귀가 시간이 늦다고 나무라야겠지요. 그렇지만 그러기에 앞서 늦잠의 이유를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제법 생산적인 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몰두하다가 늦잠에 취한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사실 이 경우는 오히려 격려 받고 칭찬 받아야 하는 경우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은 바라는 데로 된다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도 있지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저들이기에 모든 일들에 이유가 있을 것이란 생각으로 여유로워져야 합니다. 판단은 늘 그 다음이지요.

100일 동안 꽃피울 큰 힘이 내재해 있건만 볼썽사납게 꺾인 저 배롱나무가 한층 더 가엾어집니다. 요즈음 계속 이어지는 청소년 폭력 문제들도 안타깝게 오버랩 됩니다. 조금 더디다고 이해받지 못하고, 질책가운데 힘겨워하는 주변의 건강해야 할 청소년들을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한 템포의 여유, 이유를 들어보는 열린 귀, 잠재력 투성이인 청소년들에게 배롱나무를 꺾은 손길과는 다른 손길로 다가가야겠구나 하고 새로운 다짐을 해보는 출근길입니다.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회색리본달기
범국민운동



당신의
따스한 눈빛,
사랑이고 희망입니다

배우 윤지민과의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밀알 _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있나요?

윤지민 _ 대학교 때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분들이 참가하는 올림픽대회에 3박4일 동안 참가해서 함께 생활하고 참가자분들이 편리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돋기만 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했었는데 오히려 굉장히 많이 배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활동 중 굉장히 예쁜 여성분이 있었는데 씻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다른 활동들 때문에 저녁이 되서야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목욕을 시켜드렸는데 그분의 몸이 한손으로 들 수 있을 만큼 가벼우신데다가 목욕을 3달 만에 해본다고 하셨습니다. 씻겨달라는 요구를 가볍게 받아드렸던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죄송했습니다.

밀알 _ 장애를 가진 분들의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윤지민 _ 비장애인들의 시선이 아닐까요? 정말 내가 어디가 불편한데 그 불편한 곳을 누군가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평범한 시선으로 대하면 어떨까요? 당신의 눈빛이 누군가에게 사랑과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은 여러분 한 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배우 윤지민과 알아보는 장애인을 위해 지켜야 할 에티켓4

1. 장애인을 보았을 때 주逖하거나 유심히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2. 장애인을 집단화하여 생각하지 않고, 한 사람으로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겠습니다.
3. 장애인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항상 장애인의 의견을 물어보고 행동하겠습니다.
4. 장애인을 만났을 때, 동정어린 격려, 호기심으로 묻는 질문을 삼가겠습니다.

[동참방법]

1. 화색리본캠페인 홈페이지

- ① 화색리본캠페인 홈페이지(<http://www.grayribbon.org>)에 접속
- ② 나눔프로젝트 → 화색리본캠페인 → 서명

2. 사이월드 사이좋은 세상

- ① 사이월드(www.nate.com)에 접속
- ② 메인 → 전체보기 → 사이월드 → 사이좋은세상 → 온라인서명 → “진행중인 서명”에서 밀알복지재단 또는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으로 검색
- ③ 동영상 시청
- ④ 로그인 후 장애인식개선 서명에 동참

법인사무국 소식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이미재 프로젝트매니저 위촉
밀알복지재단에서는 1월 27일(금)에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빈곤아동교육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이미재 선교사를 프로젝트매니저로 위촉하고, 라이베리아 아동들에게 교육비, 간식비, 학교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이지훈, 밀알복지재단 홍보대사로 위촉
2012년 2월 2일(목) 16시, 밀알복지재단 대청종합 사회복지관에서 이지훈이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밀알복지재단, 교회협력사업 본격적으로 시작
밀알복지재단에서는 2012년 본격적으로 교회협력사업을 시작한다. 교회협력팀은 교회를 대상으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홍정길이사장, 남서울은혜교회 은퇴 감사
리셉션 진행**

밀알복지재단의 이사장인 홍정길 목사의 남서울은혜교회 은퇴감사 리셉션이 지난 2월 13일(화) 오후 5시에 밀알아트센터 도산홀과 세리막팔레스홀에서 진행되었다.



'사랑의 둘니사업' 첫 번째 대상자 치료 종결
이민스치과와 밀알복지재단이 함께하는 '사랑의 둘니사업' 실행 5개월 만에 첫 번째 대상자의 치료가 종결되었다. 저소득장애인 및 노인들에게 둘니를 지원하는 사랑의 둘니사업을 실행한지 5개월만에 첫 번째 대상자의 치료가 종결되었다.



에티오피아 박수일, 정순자 프로젝트 매니저 위촉식
밀알복지재단에서는 2월 17일(금)에 에티오피아 박수일, 정순자선교사를 프로젝트로 매니저로 위촉하였다. 박수일, 정순자매니저는 밀알복지재단 에티오피아 식량구호사업과 해외아동결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다가스카르 이동진료사업 전문봉사자 이경화
간호사 파견**
밀알복지재단에서는 2012년 2월 23일 이경화 간호사를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로 파견하여 이재훈매니저와 함께 1년에 6회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지에서 이동진료활동을 펼친다.



산하시설 소식



강남구직업재활센터, 삼성 물품나눔 전달식

2012년 1월 20일 삼성봉사단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강남구직업재활센터에 쌀 600kg을 전달했다.



해마을주간보호센터, 1월 JOYFUL활동 진행

해마을주간보호센터에서는 1월 joyfu 활동으로 수피아 눈썰매장에 다녀왔다. JOYFUL활동은 지역, 자폐성 장애인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현장 학습 활동으로 매월 1회 진행된다.



밀알학교, 졸업식 진행

지난 2월 15일(수)에는 밀알학교 졸업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졸업식은 유치원(제15회), 초등학교(제15회), 중학교(제12회), 고등학교(제9회), 전공과(제3회)로 61명의 학생이 수료 및 졸업장을 받았다.



안산장애인종합복지관, 2012년 겨울 놀해왕학교
2012년 1월 4일~1월 20일까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놀해왕학교를 실시하였다. 생애주기별달에 맞게 아동에게는 자기관리 및 치료프로그램을, 청소년에게는 성교육 및 직업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다.



안산시장애인주·단기보호센터,

KRA 아간보호 및 재활치료사업 진행

안산시주간·단기보호센터에서는 마사회의 지원을 받아 중증 지적·자폐성 청소년에게 아간보호 및 재활치료 사업을 실시하였다.



밀알주단기보호센터, 장애인 주·단기 서비스 제공

밀알주단기보호센터에서는 1월 9일부터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재가장애인에게 주간 또는 단기의 입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봉시니어클럽,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모집 및 신규사업 시작

도봉시니어클럽에서는 올 해 시장형사업으로 은모닝작업장, 은빛새벽장, 청인어르신 손수레어르신 스피드택배사업을, 복지형사업으로 다복솔어르신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참여어르신들을 모집하고 있다.



우리풀러스작업장, 성교육 실시

지난 1월 3일(금) 우리풀러스작업장에서는 따뜻한 햇살 양성평등상담소의 후원으로 근로장애인을 대상 성교육을 실시하였다.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역량강화교육

“소통의 리더십”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1월 17일(화) 다음 세대재단의 방대옥 총괄실장을 강사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다.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국제뷰티서비스협의회'와 협약 체결
2012년 1월 10일(화)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한국국제뷰티서비스협의회'의 협약식이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스킨케어, 헤어 등 결혼
이민자의 재능과 소질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
으로 기대된다.



대청종합사회복지관
새해맞이 "사랑의 쌀" 전달 행사
대청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12년 새해를 맞이
하여 현대백화점의 후원을 받아 지역 내 수급세대
500가정에 쌀과 라면 등 약 35,680,000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중림어린이집, 유아 발표회 개최
2012년 1월 27일(금) 중림어린이집 주관으로 유아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발표회를 통하여 그동안
준비한 악기 연주 및 음동과 노래를 뽐내는 시간을
가졌다.



일원어린이집, 지문카드 전달식 진행
일원어린이집 재원생이 2012년 1월 6일(금)에
일원마을소에서 미아방지를 위한 지문채취를 하고
지문카드 전달식을 하였다.



한우리주 간보호시설, 눈썰매장 겨울나들이
한우리주간보호시설에서는 2012년 1월 12일(목)에
시설 이용자들과 자원봉사자가 1:1 짹을 이루어
눈썰매장을 다녀왔다.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미션·비전 및 윤리강령 선포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지난 1월 2일, '2012 시
무식'을 통해 새롭게 개정된 운영 미션·비전 및
윤리강령을 선포하였다. <행복 서비스, 오랜 감동!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을 슬로건으로 실천방침을
위한 6C 전략과 윤리강령이 소개되었다.



도봉실버센터, 명절행사 진행
2012년 1월 20일(금) 장기요양, 주·야간보호
어르신을 대상으로 설날행사를 가졌으며 만두 빚기,
세배 드리기, 손제기자기와 물놀이 등을 통한 설
전통행사를 진행하였다.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2012 겨울방학 청소년자원봉사학교 진행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1월 18일(수)
~ 19일(목), 이틀에 걸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르신을 공경
하는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자원봉사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청밀, 강남구립(job)온서트 사회적기업 대표로 참석
강남구청이 주관으로 1월 27일(금)에 진행된 '온서트'
에 사회적기업 청밀이 참가해 맞춤형 취업 창업
컨설팅과 사회적기업에 관한 충보활동을 하였다.



목련어린이집, 장애아동 학프로그램 운영사례 발표
지난 1월 28일(토) '장애아 통합 프로그램 운영사례,'
라는 주제로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통합어린이집
에서 근무하는 원장과 교사, 보육정보센터 특수
교사 등 통합교육에 관심 있는 관리자 80여명이
참여하였다.



부암어린이집, 천사들의 축제
부암어린이집에서는 지난 1월 28일(토) 세검정
초등학교에서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함께하며
일년간 배우고 익히 송씨를 마음껏 뽐내는 "천사
들의 축제"를 진행하였다.



청마을어린이집
청마을어린이집에서 1월 19일(목)에 대청종합사회
복지관 내 노인장을 방문하여 어른들께 세배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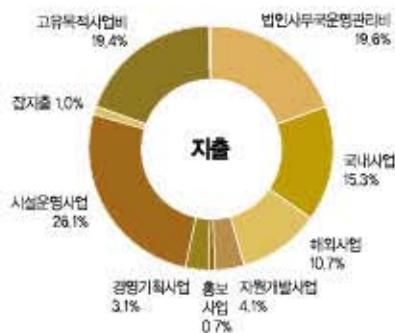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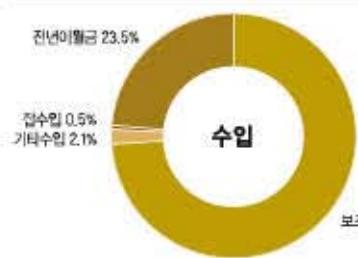


경남지부, 어머니와 장애아동들의 일본여행
경남지부에서는 어머니 4명과 장애아동 4명이
일본여행을 다녀오는 시간을 가졌다.



밀알복지재단 결산내역보고 (2012년 1~2월)

수입			
총계		947,654	100%
보조금	소계	700,879	74.0%
	경상보조금 외	1,665	0.2%
	후원금 소계	699,213	99.8%
	- 정기사업후원금	309,302	44.2%
	- 비자장후원금	285,621	40.8%
	- 지정후원금	104,290	14.9%
기타수입	소계	19,768	2.1%
	- 치료교육비	10,935	55.3%
	- 다른회계로부터 전입	8,833	44.7%
잔수입		4,494	0.5%
전년도아월금		222,512	23.5%



지출			
총계		947,654	100%
법인사무국	소계	185,691	19.6%
	- 인건비	165,26	89.0%
	- 업무추진비	8,711	4.7%
	- 운행비	11,714	6.3%
	소계	247,698	26.1%
	- 경매인복지사업	140,723	56.8%
시설운영사업	- 노인복지사업	22,800	9.2%
	- 지역복지사업	29,163	11.8%
	- 아동복지사업	11,180	4.5%
	- 기타사업(문화, 일자리 등)	43,833	17.7%
	소계	144,805	15.3%
	- 시설및단체지원사업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	78,342	54.1%
국내사업	- 장애인숙박사업	60,388	41.7%
	- 자원봉사 관리사업	129	0.1%
	- 기업사회공헌사업	5,946	4.1%
	소계	101,113	10.7%
	- 아프리카 지원사업	60,940	60.3%
	- 아시아 지원사업	11,112	11.0%
해외사업	- 해외사업개발	29,062	28.7%
	소계	38,680	4.1%
	- 미디어개발사업	830	2.1%
	- 온라인사업	7,898	20.4%
	- 교회협력사업	734	1.9%
	- 회원서비스사업	29,217	75.5%
흥보사업	소계	6,802	0.7%
	- 오프라인/온라인 흥보	6,802	0.7%
	소계	29,692	3.1%
	- 고유연구사업	15,387	51.8%
	- 회계평가 및 전산개발	14,305	48.2%
	잡지출	9,791	1.0%
고유목적사업	소계	183,382	19.4%
	- 고유목적사업비	183,382	19.4%

회원공고

회원님, 밀알복지재단 자동이체 출금일은 5일, 15일, 25일입니다.

기존의 11일자 및 26일자 자동이체 출금 회원님의 출금일은 각각 15일자와 25일자 출금일과 통합되었습니다.

(‘11일자 → 15일자’, ‘26일자 → 25일자’ 통합 변경)

회원정보 변경이나 소득공제 관련 문의사항은

1600-0966(밀알복지재단 회원관리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